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세션 7, 선거 체계 공식화, 번호 2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선거 체계적 공식화, 2번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의 교리를 공부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은 선거의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거의 타이밍, 즉 창조 전이라는 사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9도 창조 전의 선거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간 이전에, 즉 영원한 과거에, 소위 말하는,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시간 이전의 선거가 우리의 믿음에 선행합니다. 계시록은 두 번이나,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면, 세상의 기초부터,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계시록 13:8,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 짐승을 경배할 것이다. 세상의 기초부터 도살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는. 그 말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지금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짐승, 계시록 17:8, 네가 본 짐승은 있었고 없고,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갈 것이다. 창세 이래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땅에 사는 자들은 있었고 없고 있고 올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에 등록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름이 삭제된다는 것은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시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초, 즉 창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 전에 택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은 택함과 그에 따른 구원이 모두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예견된 인간의 믿음이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택함의 근거에 대해 질문할 때 발견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근거, 하나님의 사랑과 뜻. 성경은 일관되게 선택의 근거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선택의 근거, 근거로 제시합니다.

구약성서는 하나님께서 왜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말해줍니다. 이스라엘만이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속합니다. 신명기 7 :6-8 은 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당신을 택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셨기 때문이다. 신명기 7:6-8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그것이 신명기 5장에 있다고 잘못 말했습니다. 네,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남자와 그의 아내 ,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믿음과 순종을 행할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민족이라고 거듭해서 묘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9 33:3과 5, 34:9 신명기 9:6과 신명기 13:10, 16 31, 27 한 번 더. 출애굽기 32:9 33:3 33:5 34:9 신명기 9:6과 13:10, 16 31, 27 오,

느헤미야 9:16과 17도. 스테반은 그의 동시대 사람들과 그의 조상들에 대해서도 말한다.

인용문, 목이 곧고 할레받지 않은 마음과 귀를 가진 사람들아. 할레받지 않은 귀?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한 것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구나. 사도행전 7:51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다작한 교사이다.

그리고 그는 그 기초를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둡니다. 세 가지 예가 충분할 것입니다. 첫째,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의 뜻의 목적에 따라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서 1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 가지 위대한 선거 구절은 우리가 신학을 끌어내기 전에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3-14는 그리스어로 큰 문장입니다. 저는 몇 년 전 Herman Ridderbos 에게서 책에서 배웠는데,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그의 신학 개요.

이 위대한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자. 전치사 반복구에 따르면, 6절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12절은 끝부분에 이르러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구절의 맨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게 되고, 저는 그것을 문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아들은 구속이 언급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언급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아버지, 구절 1:6.

아들, 7:12. 성령, 13:14. 그뿐 아니라 바울은 삼위일체적 세 인격 각각에게 구원의 사역을 할당합니다.

아버지의 일은 선거이며, 그것은 11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아들의 일은 그의 피를 통한 구속이며, 그 중간 문단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봉하는 아버지의 대리인입니다.

그는 인장이며, 성령은 인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인장하는 자이며, 아들 안에서 우리의 연합을 인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장은 성령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선거 또는 예정, 구원, 인봉. 이 틀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삼위일체의 조화를 봅니다. 아버지는 백성을 택하시고, 아들은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아버지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봉합니다. 노트로, 강의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시키시기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뜻의 목적에 따라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몇 구절 뒤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11절은 우리가 그의 뜻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에 근거하여 택하십니다, 4절. 사랑으로 그는 우리를 입양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의 목적에 근거하여 우리를 택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디모데후서 1:9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단어, 목적. 프로테시스.

사실, 11절은 성경의 어떤 구절보다 강력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예정된 기업을 얻었고, 이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짐을 지고 있습니다. Whew! 선택은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에 기초합니다. 구약의 전조를 반영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은 그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도 택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를 선택한 계획은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야 했고, 지금보다 더 나은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탈출한 이집트인에 대한 힌트만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마지못해 니네베로 가는 모습. 여리고가 파괴될 당시 라합과 그녀의 가족. 그런 것들에 대한 힌트일 뿐이다.

하지만 이사야는 예언했고, 사도행전은 메시아와 그의 백성이 민족들에게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합니다. 신약에서 그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 그리고 그의 열두 제자들, 우연이 아니라, 열두 지파를 대체하는 열두, 그리고 기독교회,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또 다른 위대한 선거 구절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돌아가서 신학을 끌어내기 전에 이 위대한 구절들의 맥락을 어느 정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강의에서 나중에 보존이나 영원한 안전에 대한 교리를 알아보기 위해 그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8:28~30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말입니다.

그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가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8:28은 정당하게 유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압니다.

문맥상의 모든 것은 앞의 구절에서 현재의 시련, 고난, 투쟁을 의미합니다 . 18절, 나는 지금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4절 29절은 이 접속사 for, gar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백성,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익하게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위해 가장 큰 선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sum bonum* ,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선, 그들의 구원.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불특정 또는 아오리스트 시제의 과거 시제 동사 5개의 저자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예정하고, 부르고, 정당화하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어이자 저자입니다.

이 다섯 동사는 각각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 미리 알려진 것과 영광스러운 것은 다릅니다.

비록 그들이 모두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 동사들의 목적어는 무엇인가? 그가 미리 아셨던 분이 끝까지 다스린다. 같은 목적어다.

그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고, 그가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것의 이름인 문학적 기법을 잊었습니다.

Judy Gundry Wolfe, Miroslav Wolfe의 아내. *Paul and Perseverance*, 인내심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좋은 책. 언어의 특징을 강조하는데, 언어가 과거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그가 예정한 자들은 뒤로 돌아간다. 그는 또한 그들을 불렀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간다.

그가 부른 사람들은 돌아간다. 이것들도 연결고리를 만든다. 청교도들은 그것을 황금 사슬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꽤 비슷하네요. 클라이맥스라는 말투입니다. 클라이맥스, 그거예요.

Blas de Brunner와 Funk, 우리가 검증해 볼게요. 표준 그리스어 문법, Blas de Brunner와 Funk. Climax, 뒤로 가서 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언급된 주어의 연속성입니다. 혹은 언급된 대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동사가 아니라 그의 백성을 동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미리 알고, 예정하고, 부르고, 정당화하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동사의 저자이십니다.

모두 과거형입니다. 놀랍게도, 로마인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의 미래인 영광스러운 것도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보존 구절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시나요? 그런 증거들 때문이에요. 하지만 또한, 그 구절 전체가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명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단지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을 것입니다. 구절 전체가 네 가지 다른 주장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는 예정하셨습니다. 그들은, 미안하지만, 그는 미리 아셨습니다. 그는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움은 너무나 확실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사들과 함께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았다는 것은 아르메니아의 관념, 즉 신이 그들의 믿음을 미리 알았다는 관념에 맞지 않을까요? 아니요, 각 동사의 주어는 신이고 신의 백성은 목적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의미적 관계는 아는 자로서 신과 알려진 자로서 그의 백성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의 배경은 우리의 본문인데, 신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에 있는 좋은 구절을 잃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당신만 내가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알고 있습니다.

신이 다른 사람을 알지 못했을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지적으로, 인지의 측면에서 그는 알았지만, 그는 그들 모두에게 사랑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 그는 공통의 은혜의 의미에서 그들에게 비와 햇살과 축복과 가족 생활의 축복 등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과 한 것처럼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미리 사랑하셨고,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그는 구원을 위해 미리 정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복음 전파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신에게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들을 그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들을 그는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미래의 영광. 그들은 그것에 참여하고 변화되고 변형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합니까? 거의 이해 못하겠어요.

그것은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멸종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스러운 인간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함께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하게 해 주세요. 우리는 이 구절들과 그 맥락을 알아야 신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은 *textus classicus*, 즉 선거나 예정 교리에 대한 고전적 텍스트입니다.

로마인에게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오순절 순례자들 중에는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초자연적으로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모든 기독교 교회와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히브리 기독교 교회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믿었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교회에서 유대인보다 수가 많았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따르면 그것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유대인 신자들을 책망합니다. 글썄요,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특히 그가 이방인들에게 사도였고 이방인들이 우세했으며, 그들은 사려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인 형제들에게 적합한 형용사입니다.

그들은 금요일 밤에 새우와 소시지 로스트를 즐겼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풀은 새우와 핫도그를 마음껏 먹고 베이컨도 먹어도 된다고 말하지만, 형제들 앞에서는 하지 말고, 금요일 밤에는 공개적으로 하지 마세요. 사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일요일에만 주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은 일요일에만 주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안식일, 초승달과 다른 유대인의 축제, 유월절 등을 지키는 것에 대해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런 일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지만,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을 더 존중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더 약한 형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에서 1장 16절과 17절의 주제적 진술로 시작하여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치유하려고 노력한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 그는 로마서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체계적인 논문으로 밝혀졌지만, 그것은 문맥화된 체계적인 논문입니다.

오, 그것은 그가 가보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 대한 그의 소개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방문하고 싶다는 그의 열망을 표현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영적 선물을 가져다주고 싶어합니다.

그는 그의 글에서 다른 어느 곳보다 체계적으로 많은 중요한 기독교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민족적 경계를 따라 찢어진 교회를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10 구절.

왜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형제를 멸시합니까? 그러므로 14:13,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당신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일이지만, 당신의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 앞에서 그것에 대해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틀렸어. 넌 그걸 넘어지고 있어. 그리고 너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먹을 수 있어.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을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20절,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 사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코셔 법을 지키고 싶어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먹는 것으로 인해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해야 하고 다른 신자들을 넘어뜨린다면 그것은 기독교적 자유가 아닙니다. 저는 로마서 15:17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제.. . 그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5:5~7. 17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5~... 인내의 하나님, 로마서 15:5, 그리고 격려의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서로 화합하여 살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환영하신 것같이 서로 환영하십시오.

당신은 강한 신학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은 당신에게 꽤 명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념 중 하나는 교회의 연합에 대한 교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교회는 하나이고, 우리는 그 연합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 신념 중 하나는 사랑의 교리입니다. 믿는 자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15:7,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러니, 네, 당신의 강한 신학적 신념을 적절한 비율로 유지하세요.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동료 신자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 수 없다면, 비록 우리가 사소한 것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비록 우리가 내 마음에 가까운 어떤 것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복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나에게서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고, 내 교리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순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랑, 교제, 평화, 다른 신자들과의 연합 등에 대한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저는 칼빈주의를 옹호하는 책을 씁니다. 하지만 제 목표는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동료 신자로 대하고 그분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오순절을 제외하고 로마로 돌아와서 때가 되어 히브리 기독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공을 돌리세요.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그들에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매우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그들은 이교도들이었어요. 이걸 힘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먹는지 보시나요? 등등.

그들은 우리와 달라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걸 힘들어요. 어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들은 우리의 일부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유대인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주로 이방인 기독교 교회이고, 유대인도 있어요."

그들의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되었고, 그들은 소수인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합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합법적인 질문입니다. 그들은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로마서 9:6이 이를 반영합니다.

주님, 맏소사,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은 한때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습니까? 주님, 우리는 정중하게 묻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9:1에서 5까지, 바울은 민족적 이스라엘인이라는 위대한 축복을 찬양합니다. 5절, 그들에게는 족장들에게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족, 아브라함과 사라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 종족에서, 육신에 따르면, 그리스도, 약속된 자, 메시아, 모든 것 위에 계신 그의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맥락을 역사적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장들은 많은,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바울의 표현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ESV. 그는 세 가지 다른 답변을 주는데, 분명히 상호 보완적인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9, 10,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권적으로 구원하기로 택하신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인간의 책임을 무효화합니다, 맞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죠, 맞죠? 틀렸습니다.

10장.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믿지 않음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받았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정당하게 그들을 책임지우십니다. Whew. 와우.

이 진리들이 어떤 면에서 보완적이라는 뜻인가요? 네. 질서가 없나요? 네, 질서가 있습니다. 신은 신입니다.

하느님은 첫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절대적 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절대적 주권보다 더 강할 수는 없을 거야. 만든 사람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나? 네가 신에게 대답할 자격이 뭐야, 늙은이? 하^あ. 세상에.

그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인간의 책임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존 프레임이 그의 뛰어난 체계 신학 책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책임과 의무는 항상 능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은 바울이 원죄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세상은 아담의 원죄로 정죄받습니다, 로마서 5장 12-19절. 이 책은 바울이 은혜와 주권과 예정에 들어가기 전에, 마소사, 9장 1:18-3:20절에 나오는 책입니다.

세상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9장.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믿지 않는 것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11장. 하나님은 아직 민족적 이스라엘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1세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로마서 11:28).

복음에 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진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선택에 관하여, 그들은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와, 와, 와, 잠깐만요.

그들은 원수이고, 그들은 사랑받는 사람들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로마서 11:28. 복음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여러분을 위해 원수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선거에 관해서는,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또 다른 설명적 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보장합니까? 선한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육체에 따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서 9-11장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혈통 후손. 민족적 이스라엘인.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여전히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의 영역에서 다른 거래에서, 내 결론 중 하나는 마지막 것들의 모든 주요 주제는 이미 있고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마지막에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끝을 향해서.

종말의 때를 향하여, 재림과 그에 따른 사건, 그리고 동시적 사건들. 그것이 이것에 어떻게 적용되며,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인가? 로마서 11:26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맥락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 11:25. 형제들이여, 나는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일부 완악함이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인 민족적 이스라엘인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모든 주요 종말론적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미와 아직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 무렵에 유대인 신자들의 큰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날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약하자면, 실제로 선거 교리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길가에 떨어졌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도예가는 자신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정확히 구원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9장에 따르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 이야기, 예수와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와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불신앙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의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불신앙으로 인해 뿌린 것을 거두었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여기에 신학적 양립주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의 주권, 로마서 9장. 진정한 인간의 책임, 로마서 10장. 둘 다 사실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첫째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둘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긴장 상태로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는가? 아니요. 11장. 그는 지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의 은사와 그의 부름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틀 안에서, 9장에서는 생각의 흐름에 대해 조금 작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요, 9:6.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의 자손이기에 다 그의 자손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삭을 통해 네 자손이 명명될 것이다.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자손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하! 이것이 아르미니우스 체계에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예견하십니다.

때때로, 신약성서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는 복음을 의미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사람을 미리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신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다음 줄에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보여 줍니다.

약속은 이렇습니다. 약속은 내년 이맘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것이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약속은 신성한 명령입니다.

사라가 신을 비웃어도 실현된 신의 말씀. 오, 신이 마지막 말을 하셨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츠하크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한 사람, 우리 조상 이삭에게서 자녀를 잉태했을 때,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악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약속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서였습니다. 그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야곱아,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그것을 미워한다. 바울이 하는 것은 구속 역사의 중요한 측면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한 쌍을 데려갔고, 그들로부터 이삭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주권적으로 성취했습니다.

더욱이, 야곱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택할 것이지 저 사람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목적이 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반대를 예상합니다.

14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어떻게 그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한 사람을 택하고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답 : 전혀 아닙니다. 당신은 신의 특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보여줄 곳입니다. 저는 제 오리를 줄 세우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5장.

네, 대명사는 단수입니다. 여기에 예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대부분 청중은 교회이므로 선택은 복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연민을 베푸는 자에게 연민을 베풀 것이다. 이것들은 단수 대명사입니다. whoms , whom이라는 단어는 항상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의지는 배제 됩니다 .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분의, 아니, 아니, 아니를 믿는 것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원하는 자나 달리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는 것은 충분히 분명합니다 .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며, 인간의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는 사람은 행동의 행사에 대한 은유입니다. 저는 73세입니다. 저는 조깅을 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했습니다. 저는 조깅을 했습니다. 지금은 걷는다. 저는 그것을 빠르다고 부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빠르다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꼬마라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아요? 저는 그것을 좋아해요. 기분이 좋아요.

그게 나를 계속 가게 한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은 노력의 한 형태다, 적어도 이 나이 든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분명하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달리기, 즉 인간의 에너지를 드러내고 행사하고 자신을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구원 역사의 또 다른 일화로 넘어가 파라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파라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일으켰으니, 내가 너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신은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가? 여전히 단수일 거라고 확신하지만, 나는 가끔 실수를 했고, 그러고 싶지 않다. 구절은 18절이다. 또 단수다.

누구와 누구 ? 그는 그가 원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가 원하는 자에게 강압하게 하신다. 때때로 선거는 개인에 대한 것이다.

신은 자비를 베푸신다. 사실, 여기에는 진전이 있다. 그 위에는 그가 자비와 연민을 베푸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 그것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가 원하는 사람을 강압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특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맥락에서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체계적인 힘은 무언가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약점을 무언가에 집중시킵니다. 당신은 로마서 9장에서 매우 쉽게 극단적인 칼빈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복음을 찬양하는 책의 중간에 있습니다. 세상에.

로마서 1:16, 17의 전체 목적은 이 책의 주제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복음에 대한 광범위한 구절, 전파의 필요성 등.

그러니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제발, 균형 잡힌 칼빈주의자가 되세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저는 14절과 19절을 모두 좋아합니다. 그것들은 제 해석이 기본적으로 옳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러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가 원하는 사람을 강압하게 하십니다.

잠깐만요! 와! 그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가요? 그 반대 의견은 그 해석에서 정확히 말이 됩니다. 그럼 왜 그가 여전히 잘못을 찾는지 물어보시겠죠. 누가 그의 뜻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반대 의견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이런 문제에서 신의 특권을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 인간아,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답하냐? 바울은 앉아서 입을 다물라고 말한다. 네가 그럴 권리가 없지... 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세상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면 참을 수가 없어. 오, 우리는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분명 우리는 제자리에 있어야 해.

우리는 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는 피조물,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빛어진 것이 빛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니? 도공이 옳지 않니? 그는 이런 수사적 질문을 계속합니다. 답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내는 그리스어 불변화사를 사용합니다. 도공이 진흙 덩어리로 한 그릇을 존귀한 용도로, 다른 그릇을 천한 용도로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그는 권리가 없습니다. 부정 불변화사에서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에서에게 자신의 뜻을 주권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제 우리는 실제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 그는 하나님의 목적과 선거가 성립하기 위해 이전에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백히, 명백히.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의 능력을 알리고자 하셨기에,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많은 인내로 참으셨다면, 이는 그가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을 위해 그의 영광의 부를 알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와. 오, 그냥 가정일 뿐입니다.

그냥,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글썄요, 다시 수사적 질문이에요. 그리고 24절에서 보여 주듯이 가정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자비의 그릇 때문에 그는 1세기 인간과 동일시합니다.

우리도 자비의 그릇으로 영광을 위하여 미리 예비되었으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우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울은 선택이나 예정을 부르심과 연결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복음을 통해 자신에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름을 공부할 때 보게 될 여러 장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이 선택과 그리기를 연결하는 곳은 존이 사람들을 자신에게 부르는 것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내 친구들, 좋아하든 싫어하든, 신은 신성한 도예가로서 분노의 그릇과 자비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모든 인간의 운명 뒤에 서 있습니까? 내 답변은 내가 고수하고 싶은 철학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의 계시에 근거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요한복음 10장, 베드로전서 2장이 떠오릅니다.

나중에 봅시다. 제 답은 예입니다. 그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 뒤에 서 있습니다.

네. 그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 뒤에 서 있습니다. 네.

파멸을 위해 미리 준비된 분노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비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그 둘을 모두 지지합니까?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그들을 동등하게 지지합니까? 제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리고 저는 문법에 호소할 것입니다. 그는 미리 자비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능동태. 파멸을 위해 준비된 분노의 그릇. 준비된 것. 수동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모두 행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모든...의 운명에 관한 성경의 진술이라고 말하는가? 그렇다. 그것들은 동등할까? 동등하게 궁극적일까? 그렇다.

그것들이 동등합니까? 아니요.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구원받는 이유를 묻는다면, 저는 가장 직접적인... 저는 즉각적인 것에서 궁극적인 것으로 넘어가고, 이 모든 답변은 성경적이고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사실인가? 그렇다. 궁극적인가? 아니다.

그들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무효화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믿음을 확립하고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답인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무효화합니까? 아니요.

성령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을 비추어 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비추나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합니까? 농담이신가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을 부정합니까? 농담이신가요? 삼위일체는 조화롭게 일합니다.

그 선거가 우리의 신앙을 허구로 만들까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허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이 21살 때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는 그것이 모두 그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나는 그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인생을 영원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결국 저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어. 반대편으로 가자.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

왜? 즉각적인 답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지옥 구절을 공부하고 저를 믿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의 재판 지옥과 불 속의 지옥을 비교해보세요.

그냥 멈추겠습니다. 지옥의 두 가지 관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행히도, 또는 다행히도, 저는 그 이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구절들을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지옥에 갑니다.

그게 궁극적인 성경적... 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든 듣지 않았든, 그들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모든 지옥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악스러운 생각, 말, 행동. 그것이 궁극적인 성경적 진술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로마서 5:12-19에서 아담의 원죄를 가장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가 부르는 대로 나의 실제 죄를 무효화합니까? 바울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8-3-20에서 그는 5장에서 원죄에 대해 말하기 전에 실제 죄에 대해 긴 논문을 썼습니다. 오, 어서! 원죄가 없다면 실제 죄가 없을 텐데요? 그렇죠.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제하지 않나요? 사도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충분해요. 저는 신학이 신비롭지 않다고 한 적이 없고,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한 적도 없어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겸손한 정신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죄로 인해 길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담의 죄로 인해 길을 잃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멸망을 위해 준비된 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잃어버려졌습니다. 으악 ! 그게 사실인가요? 네. 창조 전이었나요? 네.

구원을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가요? 아니요, 그는 구원을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는 데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그는 그저 그들을 지나쳐야 합니다.

그게 그의 결정이 아니냐? 그렇구나. 이해할 수 없어. 이해가 안 가.

그것은 자신의 거룩함과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것을 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사실을 빚지지 않았을까요? 그는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빚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을 지나쳤고, 그것이 그들의 정죄의 궁극적 근거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타락을 무효화합니까? 창세기 3장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과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 어떤 것이 사람들의 불신을 무효화합니까? 영원한 형벌을 가르치는 유명한 지옥 구절 10개를 연구해 보세요. 내가 성경에서 한 가지를 안다면, 나는 이것을 압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그것을 집어서 계속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텍스트들을 살펴본 후, 우리는 그것들에 기초한 체계적 신학을 짚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선거 체계적 공식화, 번호 2입니다.